

연구소 소식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방안'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15일(금) 7월 1일자 실행을 앞둔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주제로 방승희 부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진숙 부위원장(보육노조), 이정미 연구위원(경기도청), 이남정 센터장(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외부 인사와 원내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직 참석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관련 쟁점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어린이집마다 규모 및 이용 가구의 특성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현장 특성에 맞게 보육교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문제점을 풀어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내외 발표를 마친 후 보육교사 근로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도입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의 문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교사 6,000명 동시 확보의 현실가능성, 개정된 근로기준법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한 유예기간 마련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기본·일반과제 중간보고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22일(금)부터 27일(수)까지 총 4일간 21개의 기본·일반과제에 대한 중간보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백선희 소장과 원내 전체 연구원 및 과제별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아 신체건강 수준 및 신체활동 국제비교를 위한 「SUNRISE pilot study Data collector training」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28일(목)~29일(금) 양일에 걸쳐 유아 신체건강 수준 및 신체활동 국제비교를 위한 「SUNRISE pilot study Data collector training」을 개최하였다. SUNRISE 연구는 2017년에 기획된 유아의 신체 활동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로,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을 통한 운동기능, 인지능력 등을 측정 및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우리나라는 이후 파일럿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SUNRISE 파일럿 연구 참여국가간 국제비교를 위해 측정도구와 방법에 대한 공통된 지침과 절차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Tony Okely 교수(호주 Wollongong 대학)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향후 육아정책연구소는 SUNRISE 국제 비교 연구 참여를 통해 유아들의 신체건강과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유아들의 신체건강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유아기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제1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10일(화) '제1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여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TF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사회정책, 모자보건, 경제, 여성·가족, 유아교육·보육, 공간·문화, 법학 분야)의 내·외부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차 포럼에서는 백선희 소장이 '초저출산 사회,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어서 김미곤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8년 하반기 중 다학제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을 주제로 2~3회의 포럼이 추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11일(수) 4층 대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장과 양진욱 회장 참석 하에 굿네이버스에서는 김정미 아동권리본부장 외 아동권리 연구소의 이순기 부장, 한유정 팀장, 장희선 연구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구소에서



는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이운진 성과공유팀장, 이운진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육아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오랫동안 아동권리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굿네이버스가 상호 협력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갈 예정이며, 현재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교육·보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 및 가정에서 아동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8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18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18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열리는 세 번째 논의의 장(場)으로 '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를 다루었다. 여성가족부의 이숙진 차관이 참석하여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본 심포지엄이 다루는 주제의 중요성을 축사로 전했다. 주제발표로는 박영주 성북아동청소년센터장이 성북구에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윤경아 YMCA서울아가야 대표는 서울아가야사업인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사업을 소개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하였으며, 감하진 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원외에서는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정영모 교수(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가, 원내에서는 이정림 연구위원, 최효미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하였다.



제5차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NPO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질병을 지닌 아동 부모들과 ‘제5차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화학물질 등에 대한 알레르기, 아토피 등 특이체질 아동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육아정책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특이체질을 지닌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기관 이용 시 차별, 교사와 기관의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 및 기관마다 지원의 질적인 격차가 크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특이체질 영유아가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영유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2018년 상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20일(금) 2018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 참석 하에 이미지 기자(동아일보), 양선아 기자(한겨레), 홍준기 기자(조선일보), 박진아 기자(뉴스토마토), 안혜신 기자(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사회부 소속 기자와 박희정 편집장(월간유아), 송지나 기



자(베이비타임즈), 최규화 기자(베이비뉴스) 등 전문지 기자를 초청해서 육아정책 현안 관련해서 연구소의 주요 연구결과 및 연구 수행 중인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내에서는 김아름 부연구위원, 이재희 부연구위원, 최은영 연구위원, 이윤진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육아정책 현안 관련해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연구소는 연구결과 확산을 비롯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대한 대안론 홍보 차원에서 그간 활성화하지 못한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2 영유아 교육보육 워킹그룹 제1차 협의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31일(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2 영유아 교육보육 워킹그룹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사회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



등의 심화,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이다. 유엔에서 공동으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 4는 교육에 대한 목표로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을 통해 결정된 인천선언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세부목표 중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관한 SDG 4.2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발달과 교육, 보육 기회를 보장받아 초등교육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협의회 대표, 서울시 보육 담당관, 유아교육 및 아동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인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등 총 1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하여 SDG 4.2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워킹그룹은 2030년까지 SDG 4.2(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과 보육) 국내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선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이행 모니터링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본 1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맥락에서의 글로벌 지표 개념 명료화, 대국민 SDG 4.2 홍보 방안 등 2018년도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향후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자키 클럽 자선 재단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21일(화) 홍콩 자키 클럽 자선 재단(Hong Kong Jockey Club Charities Trust) 대표단과 함께, 한국과 홍콩의 다문화 및 이중언어교육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원내에서는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박원순 국제협력팀장, 권미경 부연구위원, 박상신



연구위원, 예한나 연구 인턴이 참석하였고, 홍콩 자키 클럽 측에서는 Ms. Eva CHENG (Senior Project Manager) 외 17인의 대학교수 및 현장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여 한국과 홍콩 내 다문화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현주소에 대해 현장감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해당 세미나를 통해 양 기관 모두 이후의 관련 연구 주제 발굴에 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이후 해당 기관들의 참신한 연구가 기대된다.

제2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9일(수) ‘제2차 초저출산 시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2차 포럼에서는 ‘아동복지·아동권리’, ‘가족’, ‘경제’, ‘유아교육·보육’의 총 4개 분야 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다. ‘돌봄 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아동수당 도입에 있어 몇 가지 논점(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 ‘가족형태 다양성 관점에서의 육아정책(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보육교사 일자리의 위기와 대응(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영유아 발달·교육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양옥승 명예교수)’ 발표에 이어서 원내의 위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추후 3차 포럼은 공간(지역), 문화, 모자보건 관점에서의 육아정책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한국모자보건학회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3일(월) 한국모자보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장과 한정열 회장 참석 하에 한국모자보건학회는 손인숙 수석부회장, 안기훈 사무총장, 이우령 학술부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원내에서는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실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영 경영지원실장, 이정림 유·보정책연구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임



신·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상호 협력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및 육아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모자보건학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한 임신·출산 및 육아 정책을 위해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공동으로 논의할 것이며,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지를 모아 생애 초기 단계인 임신, 출산, 신생아 관련 연구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7일(금) 11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 확대,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동 프로그램 기획·개발,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진흥원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함에 따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향점 제시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양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유아 대상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유아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과 향유의 계기를 넓혀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일본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진과 유아교육과정 관련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7일(금) 연구소 소장실에서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진과 누리과정(개정) 및 유아교육정책 동향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는 丹羽孝(나고야시립대학 특임교수), 新井美保子(아이치교육대학 교수), 韓在熙(시텐노지대학 단기대학부 준교수), 문미옥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정미라 교수(가천대 유아

교육과)와 연구소의 백선희 소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영 경영지원실장, 최은영 연구위원, 백수정 위촉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주도하는 세계의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한-일유아교육정책 동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



며,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일본도 누리과정처럼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이 통합하는 과정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2018년 제4차 육아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12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8년 제4차 육아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열리는 네 번째 논의의 장(場)으로 '출산·육아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Toward a



Childbirth and Childcare Friendly Workplace and Society)'을 주제로 다루었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직접 전했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면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Mathijn Wilkens(Eurofound Research Officer)의 'EU의 일·가정양립 이슈 및 현황(Work-life balance in the European Union)', Erica Lindahl 교수(Uppsala University)의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정책과 여성노동시장 성과(Work-life balance policies and female labour market outcomes in Sweden)', Sachiko Nozawa 교수(도쿄대학)의 '고용주 제공보육서비스의 도입 배경, 동향과 과제(Employer-provided childcare services in Japan: Background,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의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

산' 발표가 있었다.

이후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대표(제이앤컨설팅), 김성식 대표(ESE harmony 컨설팅),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승희 활동가, 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